

#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꿈을 펼치도록”

### 전북교육청 - 부안군청, 교육협력정책간담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부안군청(군수 권익현)은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교육협약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부안군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정병익 부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규모 학교 적정규모화, 고등학교 석식 무상지원, 교육용 상수도 요금 체제 마련, 청소년 특새늘이기 사업 지원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부안군은 하서면 3개 초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50명, 중학교는 30명으로 초소인수 학교로 전락해 정상적인 교육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당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4개 초·중학교 통합을 제안했다. 또한, 부안군이 도내 최초로 관내 고등학교 중 희망자 630여명 전원에게 저녁 급식비 50%를 지원하고 있다며, 나머지 50%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부안군 제안에 대해 정병익 부교육감은 “농촌학교 살리기 가 전북교육 기본 방향으로 통폐합을 지양하고 있으나,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대다수가 통합을 원하고 동문회 등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 통합추진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석식비 무상지원에 대해서도 도내 시·군중 부안군이 가장 앞서 고교학생 석식비 50%를 지원하고 있는 권익현 군수께 감사를 표하며, 현행 「학교급식법」에 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은 점심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적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다만, 무상급식이 최근 10여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전면화 되었듯이 관련 법률개정이 이뤄진다면 석식비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교육청은 부안군청에 학교용 수도요금체제 조례개정으로 학교 상수도 요금 절감과 부안군청이 특화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특새 늘이기’ 사업비 1억



지난 11일 부안군청에서 전북도교육청과 부안군청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원의 계속지원, 스쿨존 지역내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요청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청소년 특새 늘이기 사업은 물론이고 약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신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의 시군 지방자치

단체 순회 정책간담회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제안과 지역내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시군 지자체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에 연초부터 본격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익산시청과 군산시청을 방문해 단체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졌고, 향후에도 시군 지자체 순회 간담회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지역균형발전 김부겸에게 듣는다

### 내일 전북대서 강연회 개최

전북 발전방향에 대한 김부겸 국회의원의 발언(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의 초청 강연이 펼쳐진다.

김 의원이 전주를 찾아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의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이사장 이명연 도의원)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내일 오후 3시 30분 전북대학교 전대학술문화관에서 도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 김부겸에게 듣는다!’ 강연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 (재)새희망포럼, JIC지방자치TV 전북총국, 한국정치연구회 주관으로 김부겸 국회의원의 특강으로 이뤄진다.

김부겸 국회의원은 이번 강연회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경험과 함께 평소 지녔던 본인의 자치분권에 관한 철학을 펼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의 당위성을 바

탕으로 단순히 기관의 자치분권에서 나아가 주민의 자발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안을 설파하며, 주민 조례 발안제와 같이 시민의 힘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는 제도 등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김부겸 국회의원은 지난 2월 12일 전주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II’에서 기초경연자로 나서 재벌 개혁, 노사문제, 성 평등 등 주요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부겸 국회의원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제16, 17, 18,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연회를 마련한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내 정치인, 대학교수, 기업인, 노동자 등 각계각층이 모여 출범했으며, 현재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에서 운영하는 이공학 오디세우스 영재교육원이 제8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 전북대, 이공계 분야 우수 고교생 육성

전북대학교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에서 운영하는 이공학 오디세우스 영재교육원이 제8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이공계에 역량이 있는 지역 우수 청소년들에게 대학 우수 연구진과의 교류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공계 분야 미래 동량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전북교육청과 전북대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집은 고분자·나노공학, 기계공학, 바이오메디컬공학, 전기·전자공학, 항공우주공학, 화학공학, 반도체, 분자생물학, 지구환경과학, 화학, 농생명

등 11개 분야에 12개팀으로 신청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참여 자격은 도내 고교 1학년 학생들이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지도교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교육생들은 오는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실험실 연구 활동과 소논문 작성 등의 활동을 하며, 연구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연구 활동 종료 후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로써 참여 학생들의 미래비전 설계를 위한 비전트립(Vision Trip) 참여 기회를 부여해 해외 우수 대학 연구실 및 기관 체험과 현지 대학 연구진들과의 만남도 갖는다.

/정은성 기자

모든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에게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110시간의 교육이수시간을 인정하며 전북대학교 총장명의로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전라북도 교육감 표창과 상품도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은 전북대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ista-ijnu>) 공지사항에 첨부된 참가신청서,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아 방문, 우편 또는 E-mail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 블로그를 참조하거나 센터 담당자(063-270-3695)에게 문의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학생정책 제안 '정책을 부탁해' 공모 추진

전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솔직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학생정책 제안 '정책을 부탁해' 공모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전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육방향이나 학교에 필요로 하는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교육공동체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전북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정책 제안 참가 대상은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모전 게시판(<http://news.je.go.kr>)을 통해 접수(1인당 1개만 가능)하면 된다.

제안 내용은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 ▲특창적이고 새로운 정책 사항이면 된다.

도교육청은 제출된 제안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0명 이내의 학생을 선발·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 정책을 제안한 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소모임·차담회를 갖고,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뒤 실무부서 검토·협의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제안 접수 종료 후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4명을 선발, 당첨된 학생 학급에 간식을 지급하는 '친구들아, 간식 먹자' 행사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임해린 수의사가 최근 열린 한국임상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학술발표상을 수상했다.

## ‘야생동물 구조부터 치료까지’

### 전북대 임해린 수의사, 한국수의학회 우수발표상 수상 농약 급성독성 의심 독수리와 말뚝가리 회복 증례 발표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임해린 수의사가 최근 열린 한국임상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학술발표상을 수상했다.

전북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진료진을 대표해 발표에 나선 임수희는 ‘유기인제 농약의 급성독성 의심이 되는 독수리와 말뚝가리의 성공적인 회복 증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야생동물을 실제 구조해 치료까지를 담당하고 있는 임수희는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를 통해 유기인제나 카바메이트 등의 농약 중독은 동물병원 현장에서 바로 진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검사에는 수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약 중독에 특징적인 임상증상은 없지만 증상과 병력을 종합하여 빠른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해린 수의사는 “앞으로도 센터에서 치료하는 야생동물의 증례를 다양하게 공유해,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